



식생활변화에 따른 유제품 소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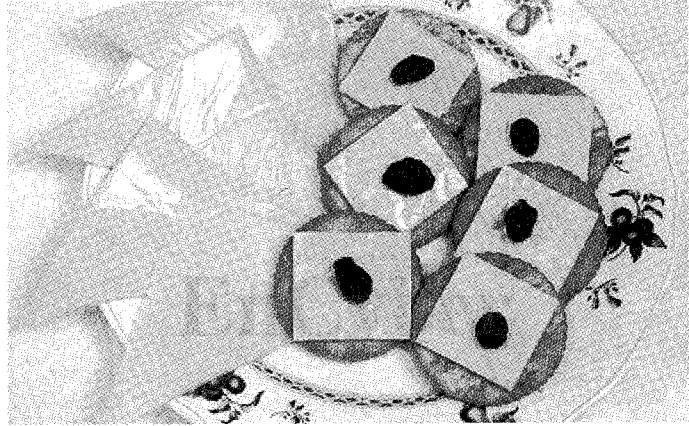
남명수
충남대 낙농학과 교수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젓소가 사육되기 시작 한 때는 1902년이며, 당시 농상공부 기사로 근무하던 프랑스인 쇼트씨가 현재의 신촌역 부근에 목장을 만들어 젓소 20두를 도입, 사육한 것이 한국 낙농업의 시작이다. 그 후 정책적인 지원으로 1910년에 젓소는 452두에 달했고, 일제 치하에서는 낙농육성책에 따라서 1928년에 1,156두, 1944년에는 2,661두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낙농업이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 초로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낙농진흥정책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많은 젓소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낙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낙농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된 우유를 가공하는 우유가공기술도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약 40여년이 지나면서 젓소의 두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현재 젓소는 약 530,000두가 사육되고 원유생산량은 약 2,300,000톤이 되며 우유가공기술도 낙

농진국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은 낙농식품산업의 발전은 전통적인 곡류중심의 식생활을 해온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단 패턴을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우유 및 유제품,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선진국형 식단으로 바꾸어고 있다.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우유 및 유제품 소비 경향

40여년의 짧은 낙농식품산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우유 및 유제품이 생산되고 소비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은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별 년도별 1인당 소비량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 연평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36.4kg이었는데 75년에는 123.6kg, 80년에는 132.4kg, 90년에는 119.6kg, 95년에는 106.5kg, 2000년에는 96kg, 2002년에는 87kg으로 1970년에 비해 무려 50kg이나 감소되었다. 한편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 및 유제품의 소비는 증가하였는데 채소는 1970년에 1인당 59.9kg, 80년에 120.3kg, 90년에 132.6kg, 95년에 153.4kg, 2000년에는 187.0kg으로 증가하였다. 과실은 1970년에 13.1kg, 80년에는 21.8kg, 90년에는 41kg, 95년에는 55.7kg, 2000년에는 52.0kg으로 1970년에 비해 약 5배 정도 소비가 증가하였다. 육류 또한 1970년에는 1인당 5.2kg이었으나 80년에는 11.3kg, 90년에는 19.9kg, 95년에는 27.4kg, 2000년에는 40.0kg으로 70년에 비해 약 8배 정도 소비가 증가하였다. 수산물 역시 1970년에는 1인당 17.3kg을 소비하였으나 80년에 27kg, 90년에 36.2kg, 95년에 45kg, 2000

년에 53.0kg으로 1970년에 비해 약 3배 정도 소비가 증가하였다. 유제품의 경우 1970년 소비량과 2002년 소비량을 비교하여 보면 소비 증가폭이 가장 큰 식품으로 70년에 소비량은 1.6kg이었던 것이 80년에 10.8kg, 90년에 42.8kg, 95년에 47.8kg, 2000년에 60kg이 소비되어 70년에 비해 무려 40배 정도 소비가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쌀 소비는 감소하고 채소, 과실, 육류, 수산물 및 유제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선진국형 식생활 패턴으로의 변화는 국민 1인당 총생산량과 관계가 깊다. 즉, 1인당 국민총생산이 증가 할수록 쌀 소비는 감소하고 채소, 과실, 육류, 수산물 및 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주요 식품별 년도별 1인당 소비량 추이(단위:kg)

구분	1인당 GNP(달러)	쌀	채소	과실	육류	수산물	유제품
1970년	-	136.4	59.9	13.1	5.2	17.3	1.6
1975년	-	123.6	62.5	15.0	6.4	29.9	4.6
1980년	1,598	132.4	120.3	21.8	11.3	27.0	10.8
1985년	2,242	128.1	98.6	35.8	14.4	37.2	23.8
1990년	5,883	119.6	132.6	41.0	19.9	36.2	42.8
1995년	10,076	106.5	153.4	55.7	27.4	45.0	47.8
2000년	9,770	93.0	187.0	52.0	40.0	53.0	60.0
2002년	10,013	87.0	-	-	-	-	65.0(추정치)

농림수산주요통계(농림부, 2001), 식품유통연감(2002년)



표 2는 일본의 주요 식품별 1인당 소비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1970년에 이미 1인당 쌀 소비량이 100kg이하인 95.1kg을 소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2000년도 1인당 쌀 소비량과 비슷한 양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도 이미 70년대에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그 후 계속해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여 93년에 69.2kg까지 감소하였다. 특이한 것은 1990년 이후에는 쌀 소비 감소 추세는 아주 완만하게 변하고 있고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 및 유제품의 소비도 큰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일본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완전히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유제품 종류별 소비실태를 알아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제품 중 시유 소비량이 감소되

표 2. 일본의 주요 식품별 1인당 소비량 추이(단위:kg)

구분	1인당 GNP(달러)	쌀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	유제품
1970년	-	95.1	114.2	37.9	13.4	31.6	50.1
1975년	-	88.1	109.5	42.4	18.0	34.9	53.3
1980년	-	78.9	110.3	38.8	22.5	34.8	62.1
1985년	11,330	74.6	108.3	36.8	25.1	35.8	67.1
1990년	25,430	70.0	107.2	37.3	28.5	38.5	83.2
1993년	-	69.2	102.7	38.5	29.9	38.0	83.6
1999년	-	-	112.6	52.5	42.4	66.5	-

농림수산주요통계(농림부, 2001), 식품유통연감(2002)

고 유제품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제품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국가별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실태를 알아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낙농선진국에서는 음용우유의 소비는 1인당 연간 100kg을 넘어서고 있고 버터는 연간 3kg 전후를 소비하는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는 1985년에 12.1kg을 소비하였고 1999년에 7.5kg을 소비하여 다른 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유제품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치즈의 소비는 1999년에 낙농선진국에서는 연간 1인당 10kg 전후를 소비하였는데 이는 우유 100kg을 소비한 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용우유의 소비량이 이들 국가에 비해 35% 정도이고 치즈는 약 1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3. 결론

우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증가에 한계가 있는 음용유(시유) 소비에만 의존하는 의식을 바꾸어 낙농선진국과 같이 유제품의 소비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표 3. 한국인의 음용유 및 유제품의 1인당 소비동향 (kg)

유제품	년도					
	1990년	1995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음용유	30.9	34.8	36	30	28	35.5
탈지분유	0.43	0.39	0.66	0.40	0.32	0.44
치즈	0.14	0.31	0.53	0.53	0.72	0.94
버터	0.17	0.06	0.08	0.08	0.05	0.10
요구르트	-	13.0	14.0	10.5	11.8	11.2
연유	-	0.08	0.07	0.07	0.06	0.09
시유비율(%)	71.3	72.7	77.6	66.6	53.7	65.0
유제품비율(%)	28.7	27.3	22.4	33.4	46.3	35.0

낙농편람(2001년)

유제품 중 특히 치즈의 소비량이 증가되도록 하여야 되겠는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 개발을 위해 학계와 유업체가 연구와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겠다. 특히 올해와 같이 우유가 과잉생산 되어서 낙농가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무적인 소식은 낙농가 중심의 “농가형 유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양질의 유제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접하여 선택할 수 있고 낙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므로 “농가형 유제품 생산 공장”이 반드시 성공하기 바란다.

표 4. 국가별 우유 및 유제품의 연간 1인당 소비량 (단위:kg)

유제품 종류	국가	년도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음용우유	미국	108	106	101	-
	캐나다	-	98	-	-
	영국	125	121	116	116
	네덜란드	135	136	132	127
	호주	102	102	105	-
	뉴질랜드	-	133	-	-
	일본	35.2	40.8	40.6	-
버터	미국	2.2	2.0	2.0	2.2
	캐나다	4.1	3.3	2.8	2.8
	영국	5.0	3.5	3.4	3.0
	네덜란드	4.0	3.4	3.5	3.4
	호주	3.9	2.9	2.9	2.7
	뉴질랜드	12.1	10.1	9.0	7.5
	일본	0.7	0.7	0.7	0.6
치즈	미국	12.0	12.7	13.6	13.4
	캐나다	11.6	13.5	12.9	14.1
	영국	7.2	8.6	8.8	10.6
	네덜란드	13.8	15.2	16.1	17.0
	호주	8.5	8.8	9.7	8.9
	뉴질랜드	8.3	8.2	8.4	-
	일본	0.8	1.1	1.5	1.7

낙농편람(2001년)